

문학, 그 참을 수 없는 진지함 (수능 언어영역 문학 접근방법)

③ - 아이들은 싸우면서 성장하고 소설 속 인물들은 서로 갈등하면서 성장한다.

written by 『Joshua』

序: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나 문제를 풀기엔 낯선 존재, 그대는 소설.

소설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학을 전공했다면 답변하기 조금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통 ‘소설’이라고 했을 때 ‘시’보다는 훨씬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오던 것들, 동화나 이야기들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책을 싫어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동화책 몇 권 정도는 읽어 보았을 것이고, 어머니 할머니를 졸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을 테지요. 소설이란 결국 그러한 ‘이야기’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에 우리에게 ‘시’보다는 많이 익숙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 왔던 이야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설을 단순히 익숙하게 느낀다고 해서, 실제 시험에서 소설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설이라는 장르에 익숙하다는 것과 소설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별개의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실제로 제 주변의 몇몇 학생들은 너무도 생소한 시(詩)라는 장르에 접근할 때에는 긴장을 충분히 하고 꼼꼼히 문제를 풀어서 잘 맞추면서도 소설 문제를 풀 때에는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전에 본 작품이라서’ 가볍게 접근했다가 많이 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상을 겪는 학생은 소설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렸을 때 듣던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소설이라는 것 자체에 짜증을 느낀다거나, ‘도대체 이게 왜 이게 답인지, 소설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호소를 하게 되더군요.

결국 이러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은 소설의 ‘주제’라든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그 접근 방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시라는 장르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 대응에 주목하면 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소설에서도 ‘과연 소설의 주제란 어떤 식으로 형성되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해한다면 조금 더 소설을 접근하는 데에 수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의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아요’라는 문제는 일정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소설의 내용을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과연 소설의 내용을 꿰뚫을 수 있는 소재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波: 모든 소설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화(童話)라는 이름의 많은 이야기들을 접해 왔습니다. 책을 통하지 않아도 입을 통해서, 심지어는 TV에서 해주는 만화를 통해서도 이야기라는 것을 접해 왔지요. 그러한 동화와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할 소설(小說)이라는 것은 화(話)와 설(說), 즉 이야기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 사이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해결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는 점에서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는 소설과 그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어렸을 때 홍길동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 있나요? 그 홍길동 이야기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홍길동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동화와 소설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일단 매우 복잡한 소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쉽게 쓰인 동화를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공쥐팔쥐전, 춘향전, 홍길동전, 그리고 저 멀리 신데렐라 이야기까지,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렸을 때 한번쯤은 읽었을 동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공쥐는 ‘착한 놈’, 팔쥐는 ‘나쁜 놈’이지요. 춘향전에서는 나쁜 놈이 변사또가 되고, 홍길동전에서는 때로는 길동의 친형이, 때로는 길동의 계모가 나쁜 놈이 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른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착한 놈과 나쁜 놈이 있다는 것은 결국 착한 편, 나쁜 편으로 나누어서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우리가 읽는 모든 소설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굳이 선과 악으로 구분을 짓지 않더라도 소설 속의 등장 인물들은 서로 싸웁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아버지와 영수는 ‘우주선을 타고 달로 가는 것’을 두고, ‘금시조’에서 석담 선생과 고죽은 서로의 ‘예술관’이 원인이 되어서 매우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싸운다’는 약간은 수준 낮은 표현을 조금만 고상하게 바꾸어 보면 ‘갈등과 대립’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소설의 내용에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이상하지요. 등장 인물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싸울 일이 없다면, 그러한 내용의 소설은 정말 ‘별 이야기 없는’ 매우 평범한 생활만을 나열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물론 그러한 예외적인 작품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전혀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겠지요. ‘A라는 인물이 살았다, 평범하게, 아주 평화롭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내용만으로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힘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소설 속 등장 인물들이 서로, 혹은 소설 속 세계와 ‘갈등’하고 ‘대립’하게 만들고, 그러한 과정 하에서 소설 속 이야기가 진행되게 하며, 그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 즉 ‘주제’를 작품 속에서 도출해 냅니다. 즉, 우리가 읽는 소설의 대부분은 갈등과 대립이라는 것을 이야기의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이 소설의 주제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이 점을 염두에 두면 글 처음에 말했던, 학생들이 종종 겪는 어려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소설에서 내용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라는 문제는 결국 소설 속 갈등 양상을 파악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무대 안에서 등장인물들은 서로 대립하고, 그 대립은 어떠한 사건으로 표출되며, 결국 그러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통해 주제가 도출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대체 애네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라는 문제에 답할 수 있다면 소설의 큰 줄거리는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등장인물들끼리 갈등하는지, 왜 갈등하는지,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바로 소설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갈등이란 것이 무엇이냐고, 아무리 봐도 갈등이란 게 안 보이는 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고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여러 문제에서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다가 싸우게 되느냐, 아주 사소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남학생들의 경우 축구를 하다가 싸움이 주로 나는데, 친구가 아무에게도 패스를 안 해준다거나 혼자 공을 몰다가 공을 놓친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나는 친구가 축구할 때 ‘팀 플레이’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개인기 돌파’를 하는 경우이지요. 여학생들의 경우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를 하다가 말싸움이 붙는데, 보통 시작을 살펴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아, 난 TOP이 제일 좋더라. TOP 짱이야!!” 이러면 다른 학생은 “아, 빅뱅보다는 동방신기지! 기력지를 봐라!” 이런 식이지요. 빅뱅을 좋아하는지, 동방신기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떠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 개인 돌파를 중시하는지 팀 플레이를 중시하는지, 혹은 빅뱅이나 동방신기 중 누구를 좋아하는지에 따라 어떠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나와 친구 사이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왜 서로 대립할까요? 두 정당 사이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고, 두 정당의 지지 기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화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먼과 수정주의자인 케인스는 ‘경제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시시건건 싸웠지요.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물리학,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의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견해(상대성 이론)를 주장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갈등’이란 결국 ‘차이’입니다. 등장인물 간의 ‘입장 차이’, 혹은 ‘생각과 견해의 차이’, 또는 ‘사회적 지위상의 차이’가 바로 그 인물들끼리 대립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입장, 같은 생각이라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드는 것은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윤홍길의 ‘장마’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소설을 설마 모르는 학생은 없겠지만, 간단한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나’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신데, 이 두 분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외할머니는 국군 소위로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이를 듣고 ‘빨갱이는 다 죽어라’고 저주를 하였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할머니는 빨치산으로 나가 있는 자기 아들더러 죽으라는 것이냐며 외할머니에게 화를 낸다.

빨치산 대부분이 소탕되고 있는 때라서 가족들은 대부분 할머니의 아들, 곧 삼촌이 죽을 것이라고 믿지만, 할머니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탈없이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예언을 근거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고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예언한 날이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난데없이 구렁이 한 마리가 애들의 돌팔매에 쫓기어 집 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본 할머니는 별안간 졸도하게 되고, 집안은 온통 쑥대밭이 되는데, 외할머니는 아이들과 외부인들을 쫓아 버리고 감나무에 올라앉은 구렁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할머니 머리에서 빠진 머리카락을 붙여 그을린다. 그 냄새에 구렁이는 땅으로 내려와 대밭으로 사라져 간다.

그 후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일주일 후 숨을 거둔다. 그리고 장마가 걷힌다.

이 소설에서 ‘나’는 소설의 관찰자일 뿐이고, 대립하는 두 주요 인물은 나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왜 ‘친할머니’랑 ‘외할머니’가 서로 대립하게 되나요? 바로 아들을 ‘국군’으로 보냈는지, ‘빨치산’으로 보냈는지에 따라서입니다. 결국 두 인물의 갈등의 원인은 아들이 국군과 빨치산이라는 ‘차이’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해소되나요? 친할머니는 구렁이를 보고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 구렁이가 되어 집을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기절하고,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잘 달래어서 보내는 것으로 두 인물은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에서 갈등의 원인, ‘차이’는 ‘국군-빨치산’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그 갈등의 극복은 ‘구렁이를 달래는 것’, 우리 민족 내에서 계속 전해오는 토속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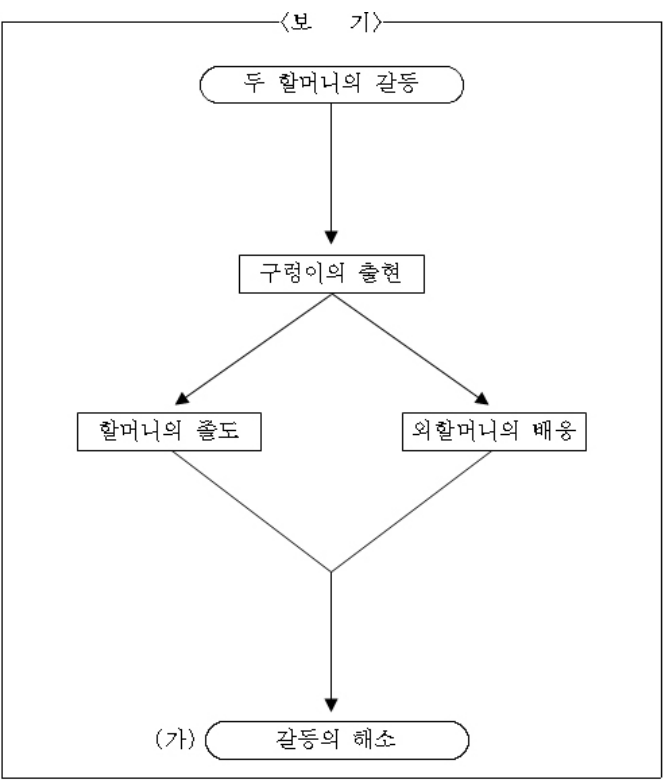
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설의 주제는 ‘왜 같은 민족인데, 가족인데 국군과 빨치산이라는 이유로 대립하고 있을까’로 파악됩니다. 소설에서의 갈등, 즉 ‘차이’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 = 차이	갈등 극복	주제
친할머니 - 빨치산 외할머니 - 국군 → 대립하는 원인	외할머니가 구령이 (=죽은 친삼촌, 빨치산)를 대접 → 토속 신앙, 민족적 정서	가족, 같은 민족임에도 이념으로 대립하는 현실을 민족 정서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갈등 구조는 ‘장마’가 출제되었던 2001학년도 수능에서 문제에 직접적으로 응용되었습니다.

<2001학년도 수능 47번, 출제 작품: 윤홍길, 장마>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가)에 해당하는 장면은?



- ① 할머니가 삼촌을 기다렸다.
- ②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였다.
- ③ 고모가 할머니에게 경과를 이야기하였다.
- ④ 외할머니가 큰방으로 건너왔다.
- 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정답: ④

이 문제의 <보기> 그림은 제가 앞서 정리했던 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친할머니

와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을 축으로 하여 소설의 전체 내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중심축은 ‘갈등’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08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이상의 ‘날개’를 출제 지문과 문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8학년도 9월 평가원 40번~43번 지문>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댕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중략)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보면, 아내와 나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아스피린을 주었는데, ‘나’는 아내가 자신에게 수면제인 ‘아달린’을 먹였다고 의심합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의 차이, 오해가 ‘나’가 아내에게 의심을 품는 계기가 되고 집을 뛰쳐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사실은 수면제처럼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지 모른다’는 주제가 형성되지요. (참으로 ‘이상’스러운 소설입니다만) 그리고 이것을 <보기>와 결합시켜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갈등 = 차이	갈등 극복	주제
아내 - 아스피린을 주었음 나 - 아달린을 먹였다고 생각	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러다가, 따지지 못하고 나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 주변의 것들이 우리를 길들이고 있고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없다.

<2008학년도 9월 평가원 43번>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정답: ②

이 문제는 ‘아내=현대 문명’, ‘나=지식인’으로 놓고 위 갈등의 원인, ‘아스피린과 아달린’으로 상징되는 두 인물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는 않았습디만 결국 두 인물 사이의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는다면 접근하기 힘들겠지요. 소설에서의 갈등, 그리고 인물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만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2009학년도 수능 47~50번 지문>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딸을 두었으나 십육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삽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 하니,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객은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미천한 인물이 귀댁에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오나 버리시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혼인은 인륜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으니 괜한 시비 마시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눈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꾀꼬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 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궁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향하다가 바위 위에 노승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엮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문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뇨?”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게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 온지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전안(鴈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야복으로 죽장을 짊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환우성: 벗을 부르는 소리.

* 전안: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4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58%)

<보 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 ①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정답: ①

출제 작품 ‘박씨전’ 중에서도 주어진 장면은 이시백의 아버지 ‘상공’과 박씨의 아버지 ‘박 처사’ 사이에서 두 자녀 사이의 혼인을 약속하고 그 혼인이 실제로 성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집안 사이의 혼인은 그리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지요. ‘상공’은 단순한 현실 세계의 인물인지라 선인(仙人)인 ‘박 처사’를 찾지 못해서 허둥대었습니다. 상공이 속한 현실 세계와 박 처사가 있는 초월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49번 문제의 경우 이러한 상공과 박 처사 사이의 차이점을 ‘현실 세계’와 ‘초월계’라는 말로 다시 한 번 정리한 후 그로 인해 생겨났던 문제(금강산에 와서 박 처사를 찾지 못한)가 ‘수평적 사고’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상공이 있는 ‘현실 세계’와 박 처사가 속해 있는 ‘초월계’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수평적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잡히지요. 두 인물 사이의 차이점이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답은 ①번인데, 이 글에서 ‘부인’은 상공과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의 사람인데 ‘박 처사’가 선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지요. 부인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박 처사의 가문이 ‘근본도 모르는 미천한 집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인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라는 두 세계 사이의 차이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직적 사고’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소설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바로 ‘갈등’이 되며 그러한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이 바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 역시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소설의 ‘갈등’에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結: 너와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패러다이스, 그런 거 없다! 그러니 차이에 주목하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친구들, 그리고 남자친구-여자친구를 거쳐 아직은 만나지 못한 배우자와 자식까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정말 나와 친한,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은 보통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죽이 잘 맞는’ 친구, 별로 차이점이 없는 친구랑 금방 친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는 나랑 죽이 잘 맞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요.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힘들지 않은가 합니다. 나와 생각이 모두 통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건 ‘낙원’이겠지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반영물인 소설 역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대립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에 주목하세요. 등장인물 간의 차이, 등장인물과 사회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본 문서의 저작권은 편집자(『Joshua』)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편집을 금합니다.

니다.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에 주목하세요. 그 부분에 바로 소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